

VOL. 11

2023 | 여름

충북학누리



김주경_북악산을 배경으로 한 풍경(1929)

충북학누리

Vol.11 | 2023 여름

CONTENTS

- | | | | | | |
|----|---|----|----|--|----|
| 01 | 충북의 문장
우리는 우리여야 할 것이다
포석 조명희 | 3 | 04 | 충북 역사 기행
17세기 서원현의 어느
노비 사송(詞訟)
조혁연 | 26 |
| 02 | 한시로 만나는 충북의 문화 공간
푸른 절벽 병풍 삼고 강을 못 삼다,
충주 몽암(夢庵)
김용남 | 6 | 05 | 충북 문화예술 여행
김주경, 변월룡을 보다
김기현 | 30 |
| 03 | 오늘을 비추는 역사 속 인물
안나푸르나의 꿈, 산악인 지현옥
유영선 | 15 | 06 | 「충북학」 원고 모집 | 36 |



〈충북학누리〉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처 충북학연구소

발간 총괄 임기현 (충북학연구소장)

기획·편집 최병철 (충북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정 민 (충북학연구소 위촉연구원)

통권 11호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홈페이지 <http://csi.cri.re.kr>

디자인 (주)픽셀즈

발행일 2023. 06. 30.

우리는 우리여야 할 것이다

포석 조명희

하늘빛이 다르고 땅 모양이 다른 곳곳에, 거기에 나는 한 포기 풀과 한 마리의 새가 곳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것은 다 그곳의 자연과 조화되어 나온 까닭이다. 한 마리의 새와 한 시인의 울음소리가 곧 그 땅 지령(地靈)의 울음소리라 할 수 있다. 앵화(櫻花)가 흩날리고 사시(四時)에 잎이 푸른 섬나라 사람 중에는 작은 새와 같은 시인이 많으며, 끝없는 광야의 대륙 나라 사람 중에는 학과 같은 시인이 많았음을 보라. 러시아 사람 중에는 얼음에 발 상한 흰곰이 끝없는 안개의 빙양(氷洋)을 바라보고 우는 듯한 침통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인도 사람 중에는 장엄한 원시림 속에 이끼 낀 반석(盤石) 위에 앉아 명상하던 성자(聖者)의 말소리 같은 노래를 들을 수 있다.

하늘 높고 물 맑은 이 땅에 산은 물결 같이 구부러지고 길도 굽이굽이 감도는데, 이 산 저 산 넘어가며 우는 빠꾸기가 우리의 소리일지며, 아침 해 봉우리에 솟고 잦은 안개 흩어질 제 하늘 끝을 바라보고 우는 두루미가 우리의 소리일 것이다. 우리 평화의 혼은 마을 울밀에 우는 닭일 것이며 우리 비애(悲哀)의 혼은 빠꾸기나 두루미일 것이다.

우리는 보들레르가 될 수 없으며 타골도 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의 것만 쓸데없이 흥내내지 말 것이다. 붉은 장미가 어떠한 당신의 레이스가 어떠한 하는 서인(西人)의 노래만 읊기려 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산비탈길 돌아들며 지게 목발 두드리며 노래하는 초동(樵童)에게 향하여 들어라. 하늘빛은 멀리 그윽하고 얇은 햇빛 가만히 쪼이는 봄에 그 햇빛의 상한 마음을 저 혼자 아는 듯이 가는 바람이 스칠 때마다 이리저리 나부끼는 실버들 가지를 보라. 조선혼의 울음소리를 거기서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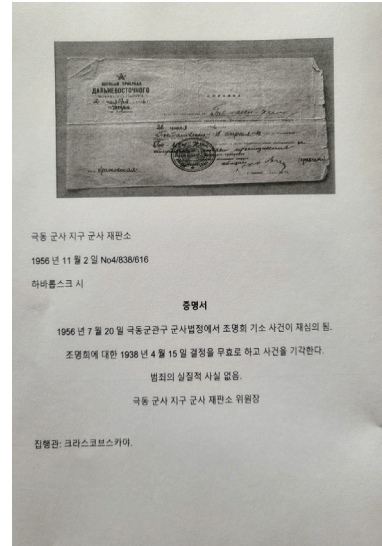


***편집자 주** 포석(抱石) 조명희(趙明熙; 1894~1938)는 충북 진천군진천면 벽암리에서 태어났다.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우리나라 근대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1928년 소련으로 망명하여 소련작가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1937년 간첩죄(일본 스파이에게 협력한 혐의)로 KGB에 체포돼 1938년 총살형을 당했다. 1956년 7월 20일 극동군관구 군사법정에서 1938년 4월 15일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기각하였고, 12월 21일 소련 작가연맹에서 소련작가연합회원으로서 작가 권리를 사후 복권시켰다.

강찬모
(포석 조명희 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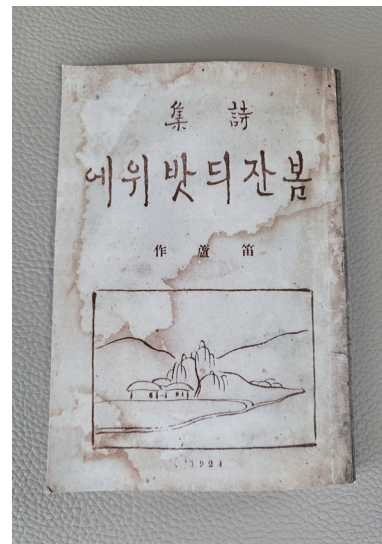


▲ KGB하바롭스크 본부가 보관하던 카드에 있던 조명희 사진. 생전 마지막 모습으로 보인다.



▲ 1938년 4월 15일의 결정을 파기한 증명서와 한글 번역문

위 글은 포석 조명희의 시집 『봄 잔디밭 위에』(춘추각, 1924.6.15.) <머리말>의 한 부분이다. 『봄 잔디밭 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발표 개인 창작 시집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집은 김억의 『해파리의 노래』(조선도서주식회사, 1923.6.30.)다. 그러나 이 시집은 김억이 이미 지면을 통해 발표된 시를 모아 시집으로 출간한 경우고 포석은 미발표 즉 아직 세상에 발표하지 않은 개인의 시를 모아 출간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금도 지면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를 발표할 수 있는 시인들이 여전히 제한적인 터라 이를 보완 대체하는 의미에서도 포석의 『봄 잔디밭 위에』는 또 다른 역사적 기원을 갖는다.



▲ 시집 『봄 잔디밭 위에』 표지

시집의 <머리말>(서문, 자서)에서 독자는 시인의 인생관 문학관 세계관 등을 엿볼 수 있다. 포석도 <머리말>에서 예술 일반에 대한 생각과 시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우리 것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밝혔다.

인용된 부분은 우리의 전통의 재해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는 태생적 환경적으로 다른 이질적 조건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잣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열의 문제로 차별적 위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소위 말하는 문화 종주국과 선진국을 동경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프란츠 파농이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 말한 백인에 대한 흑인의 열등의식 즉 검은 피부를 부정하고 백인의 세계에 편입되기를 갈급하는 욕망을 하얀 가면이란 허위의식으로 규정한 맥락과 같다. 우리의 근대가 그랬다. 전통은 부정되거나 버려야 할 유산으로 치부되었다. 사실 이러한 극단적 이분법을 무조건 비판할 수 없는 게 우리 근대의 뼈 아픈 자화상이긴 하다. 전통이 굳건했다면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많은 청년과 지식인들이 식민을 강제한 제국으로 앞다투어 유학을 떠나 근대 열병에 빠졌던 것이다.

인용된 <머리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쓰인 전통의 재해석이라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포석은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문명의 최첨단을 경험한 소위 서구적 관점에서의 ‘근대인’이었다. 그런 그가 다른 동료 지식인들이 오직 근대만을 쟁취하기 위해 버리고 떠난 전통을 주어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조선적인 것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연민을 엿볼 수 있다. 타인의 시선으로 본 전통은 청산과 타파의 대상이지만 당시 조선이라는 땅을 배경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바탕이며 현실의 기반인 것이다. 포석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엄연한 인식을 배경으로 선택 이전에 운명적으로 주어진 태생적 조건이 전통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포석의 <머리말>은 지금도 시대를 초월해 우리는 누구인가를 묻는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종합 보고서다.



▲ 진천 포석 조명희문학관

푸른 절벽 병풍 삼고 강을 못 삼다, 충주 몽암(夢庵)

김용남(충북대 강사)

음성의 음애동으로 물러나다

음성 소이면 비산리 방죽안 마을 뒤편에 있는 음애동(陰崖洞)을 찾아 나선 길엔 녹음이 짙게 깔렸다. 길 오른쪽으로 난 농로를 따라 가니 과수원 옆으로 작은 계곡이 보였다. 비탈을 따라 내려가니 풀이 우거진 사이로 계류가 맑게 흐른다. 계곡 왼쪽으로는 마치 병풍을 두른 듯 높고 긴 바위벼랑이 이어져 있고, 그 사이 우거진 수목은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음애동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늘진 벼랑이 있는 골짜기이다. 이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이자(李紆, 1480~1533)는 9년을 살았다.

이색의 후손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감찰로 벼슬을 시작한 이자는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선발되어 호당에 드는 영예를 입은 후 청요직을 두루 지냈다. 채수(蔡壽, 1449~1515)의 사위로 김안로(金安老)와는 동서지간이다. 김안국(金安國)·성세창(成世昌)과 교유하며 1516년 10월에는 의형제를 맺은 조광조(趙光祖)·조광보(趙廣輔)·조광좌(趙廣佐)와 함께 용인 선산 골짜기 두암(斗巖) 위에 사은정(四隱亭)을 지었다. 이곳에 은거하며 낚시하고 나물 캐고 땀감을 하고 밭을 가는, 이 네 가지를 즐기곤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519년(중종 14) 11월 15일에 일어난 기묘사화는 이들 네 사람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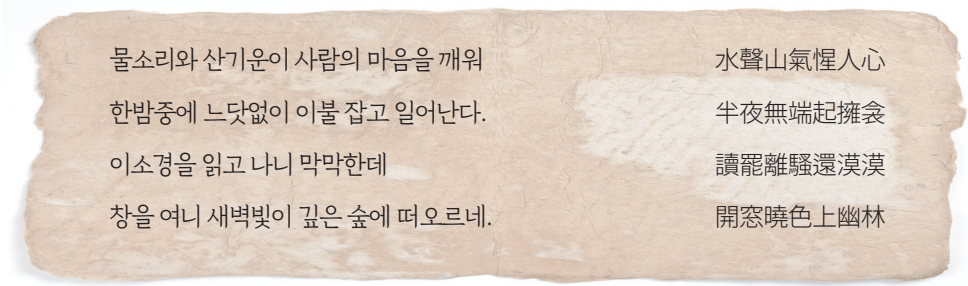
다행히 삭탈관직에 그쳐 살아남은 이자는 용인에는 먹고살 전답이 없었기에 이듬해인 1520년 음성의 음애동으로 거처를 옮기고 자신의 호 또한 음애(陰崖)라 하였다. 현재 계곡 왼쪽 길게 늘어선 바위 아래에 ‘음애동(陰崖洞)’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 바위에는 ‘탁영선탑(濯纓仙榻)’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다. ‘갓끈을 씻는 신선의 평상’이라는 의미다. ‘탁영’은 굴원(屈原)이 지은 <어부사(漁父辭)>의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어도 좋으리라(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세속을 초탈한 듯한 고결한 모습을 뜻한다. 평상처럼 생긴 바위를 보면 그 옛날 이곳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세사(世事)에 담연했던 이자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다.



▲ 음애동



▲ 탁영선탑



<즉사(卽事)>이다. 이자는 이곳 음애에 조그만 집을 짓고 살면서 문을 닫고 인사를 끊었다. 시주(詩酒)로 스스로 즐기며 세상을 잊은 채 탁영의 자태로 살고자한 그이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밤중에 일어나 <이소경(離騷經)>을 읽는다. <이소경>은 초나라의 대부였던 굴원이 참소를 당하여 쫓겨난 뒤 임금을 생각하여 근심스러운 심정을 읊은 것이다. 번민과 근심을 달래기 위해 지은 것으로 신선의 세계를 노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벼슬에서 쫓겨나 음성에서 타향살이하는 처지가 그 옛날 굴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이자의 막막한 심사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갑신년 달력의 책가외에 쓰다(題甲申曆衣)>에서, 이자는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자신의 처지에 몹시 낙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갑신년은 1524년으로 이자의 나이 45세이다. 인간에게 마흔다섯이라는 나이는 단지 산언덕 하나에 생사가 변한다고 한 그다. 이처럼 늙어 육체와 정신이 서로 조문하는 때에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으니 괴로움에 종종 술을 찾곤 하였다. 1530년 설달그림에 쓴 <스스로에 대하여(自敘)>에서, 이자는 이때의 삶을 “때로 술을 얻으면 실컷 마시고 10여 일씩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꿈속에서 헛소리 하듯 자빠지고 쓰러져 정신이 희미한 채로 빈터에 오락가락하였다.” 라고 적었다. 평소 담연히 살고자 하였으나 그 또한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이따금 찾아오는 울분과 고통을 술로 달랠 수밖에 없었으리라.

음애동에 내려온 지 5년 만인 1525년(중종 20), 이자는 살던 집을 고쳐 과정(瓜亭)이라 하고 4년을 더 이곳에서 살았다. 그가 지은 <과정기(瓜亭記)>에 의하면, 과정은 배나무에 기대어 엮은 집이다. ‘과정’이라 이름붙인 것은 한 일을 뜻한 것으로, 이자는 집 동북쪽 빈터에 오이를 심어 가꾸었다. 과정이 실제 그 가운데에 있어 앉아서 다리를 뻗기도 하고 서서 길게 휘파람 불기도 하였다.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열고 달이 뜨면 그림자를 대하니 자랑할 만한 집은 아니나 그에게는 극락과 다름없었다.

**산 높고 내 깊은
토계로 이거하다**

이자는 1529년(중종 24) 음성 음애동에서 충주 달천 상류에 있는 토계(兔溪)로 이거하였다. 오늘날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이다. 그는 <스스로에 대하여(自敘)>에서, “다시 깊은 곳으로 갈 생각으로 토계로 옮겨가니 사람의 자취가 끊어지고 마을 연기가 지극히 적었다. 산은 높고 내는 깊은데 종일토록 어정거리며 물새와 들짐승과 더불어 세상일을 잊고 왔다 갔다 하니, 소탈하고 촌스러운 성격에 마음속으로 기대한 것과 우연히 합하였다.” 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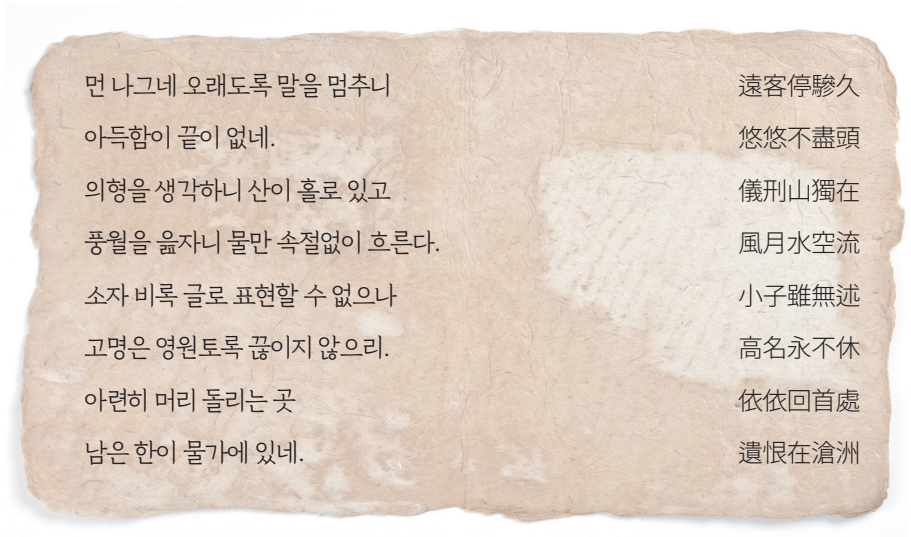
토계는 검암(劍巖)이라고도 하는데, 굽이굽이 흐르는 달천에 8개의 봉우리가 늘어서 있고 깎은 듯한 바위가 칼처럼 솟아 있다. 이자는 이곳의 그윽함을 사랑하여 마침내 살만한 곳으로 정한 것이다. 우뚝 솟은 푸른 절벽이 그림처럼 펼쳐져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데, 요즘에는 ‘수주팔봉’으로 널리 불린다. 이자에게 토계는 그 어느 곳보다 잘 맞는 곳이었다. 다시금 궁벽하고 경치 좋은 곳을 얻어서 주인이 되었으니 천지간의 한 가지 좋은 일이었다.



▲ 산 높고 내 깊은 토계

산골 물길 휘어진 곳에 집을 지으니	結屋山澗曲
바람과 햇빛 또한 느긋해서 좋구나.	風日喜舒遲
봄새는 나무를 가리지 않고	春禽不擇樹
여름자리는 그늘을 따라 옮겨간다.	夏席隨陰移
가을 강에 새벽하늘 비치고	楓江照曉天
겨울 화로에 양피를 그을리는 곳.	雪爐熏羊皮
소요하며 사는 것에 만족하나	逍遙且于
백년을 누가 능히 기약할까.	百歲誰能期

<토계로 거처를 옮기다(移卜兔溪)>이다. 토계로 옮긴 이자는 산골 물길이 휘어진 곳에 집을 지었다. 바람과 햇빛이 느긋하게 드는 곳이라 더욱 마음에 든다. 나무를 가리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봄새, 그늘을 따라 옮겨가는 여름자리, 새벽하늘 맑게 비치게 가을 강, 양피를 그을리는 겨울 화로는 토계의 사계절 모습이다. 그리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마음에 맞는 이곳 토계에서 이리저리 거닐며 자족하며 산다. 그러나 아름다운 토계에서의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다. 새삼 신이라는 나이가 그로 하여금 앞일을 장담할 수 없게 하니 말이다.



채무일(蔡無逸, 1496~1546)이 지은 <토계를 지나며 느낌이 있어(過免溪有感)>이다. 채무일은 채수의 손자이다. 이자가 토계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채무일이 토계를 찾았다. 봄 산에 꽃이 만발할 때였다. 늘 그립고 걱정이 되었던 고모부를 찾아뵙고 돌아가는 길이다. 그러나 쉬 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오래도록 말을 멈추고 서있다. 늘 자신에게 모범이 되었던 이자는 홀로 우뚝 선 산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하게 그곳에서 풍월을 읊고 있을 수도 없다. 온갖 신산(辛酸)을 겪고 있는 고모부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공연히 다하지 않는 뜻을 머금은 채 시선을 물가로 돌린다.

**꿈을 꾸며
사는 집, 몽암**

이자는 토계에 몽암(夢庵)을 짓고 호도 몽옹(夢翁)·계옹(溪翁)이라 하였다. 택호(宅號)를 몽암이라 한 까닭은 그가 지은 <몽암기(夢庵記)>에 자세하다. 이자는, 무릇 꿈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정에서 나온다고 하며, 열두 살 때 강원도 관찰사였던 부친을 따라가서 본 관동의 여러 절경과 중년에 사신으로 북경에 가서 본 광경에 대해 얘기하였다. 이어 맑은 바람 밝은 달에 별안간 옛날 놀던 일이 생각나면 푸른 비랑 아래서 쇠 젓대를 불고 낚시대로 황어(黃魚)를 낚으며 일찍이 마음속으로 오가지 않음이 없으니, 정과 생각이 섞여 쏟아져 꿈속에서 서로 찾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몽암’은 토계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찬란했던 때를 추억하며 꿈에서라도 그 시절의 사람들을 만나며 살겠다는 것이자, 한편으로는 그 화려하고 고운 꿈을 현실에서 실현하고픈 이자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다.

몽암이 있었던 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현재 토계리 검암 근처일 것이라 짐작만 할 뿐이다.

단출한 초가에 성긴 울타리 어른어른
푸른 절벽 병풍 삼고 강을 못 삼았네.
책상에는 시서 술병에는 술이 있으니
음애에서의 생활을 모두 옮겨놓았네.

茅齋楚楚映疏籬
翠壁爲屏江作池
案有詩書瓶有酒
陰崖活計已全移

늘그막의 심사 그윽하니
매번 산문에 이르도록 생각이 독차지하네.
거마 소리 본래 없어 의심 일지 않으니
종일 한적한 뜰에서 책을 보다 잠이 드네.

暮年心事屬幽偏
每到山門思獨專
車馬本無猜不起
閒庭終日對書眠

<몽암에서 조용히 살다(夢庵幽居)> 2수이다. 첫 번째 시를 보면, 푸른 절벽 병풍 삼고 강을 못 삼은 몽암은 성긴 울타리 어른대는 단출한 초가이다. 음성 음애동에서 살 때처럼 늘 책상에는 시서가 놓여 있고 술병에는 술이 차 있다. 음애에서의 생활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그 옛날 몽암의 모습을 어렵듯이 그려볼 수 있다. 두 번째 시는 이자의 몽암에서의 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수시로 산 어귀로 산보를 하는데 머릿속은 온통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하다. 애초 실각한 사람의 집을 찾는 이들이 없으니 의심이나 시샘과도 거리가 멀다. 산보를 나가지 않으면 종일 한적한 뜰에서 책을 보다 잠이 드는 것이 일상 하는 일이다.

만사가 아득함을 이미 알고 있으니
몽암에서의 그윽한 일 오래도록 어긋났네.
오늘 아침 소매를 떨치고 앞길을 찾으나
또다시 하얀 눈으로 천공에게 속는구나.

萬事悠悠已自知
夢庵幽事久差池
今朝拂袖尋前路
又被天公雪作欺

<도중에 눈을 읊다(途中詠雪)>이다. 이자는 가끔은 앞 숲에 흰 눈이 가득한 것을 보려고 나귀를 타고 나섰다. 아니 조금 솔직히 얘기하자면 뭔가 답답한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환히 트인 앞날을 보고자 아침부터 길을 나서는 것이다. 길을 가다 나귀 등에서 한가하게 시를 읊다가도, 가장 즐겁고 따뜻하며 화려했던 시절을 꿈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만나고픈 생각으로 몽암을 짓고 산 자신의 뜻이 오래도록 어긋났음을 안다. 늘 그렇듯 조물주가 또다시 눈으로 자신을 속였음을 알기에. 하얀 눈이 녹아 사라지는 순간 다시금 팍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토계에 배를 띄우고

토계는 이연경(李延慶, 1484~1548)이 사는 용탄(龍灘)과 멀지 않은 곳이다. 애초 이자가 음성에서 충주 토계로 옮긴 이유 중의 하나도 그와 가까이 교류할 수 있어서이다. 이연경 또한 기묘사화 때 유배를 면한 후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뒤로는 이자와 더불어 산수를 벗하며 자주 왕래하였다. 처지가 비슷했던 두 사람은 세한(歲寒)에도 서로 무사하기를 바라며 마음을 나누었다. 이따금 골짜기에 드는 벗의 나귀 소리에 반가워 서둘러 마당을 쓸던 이자는, 맑은 바람 맑은 달을 만나면 문득 노를 저어 이연경을 찾곤 하였다. 또한 기묘사화 이후 음성 지비천(知非川)에 은거한 김세필(金世弼, 1473~1533), 그밖에 이약빙(李若氷)·허초(許礎) 등과도 도의를 궁구하고 시주를 즐기며 근심을 잊었다. 이때 이연경의 사위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이 그를 찾아 배웠다.

이렇듯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강학을 하자니 몽암이 너무 좁았다. 이에 1531년 못 쓰는 배를 구하여 토계에 띄우고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이자가 지은 <배의 갑판에 붙인 기문(船板記)>에 의하면, 그는 조그만 배에 짚방석을 깔고 앉고 네모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편안히 쉬었다.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열고 달이 뜨면 달그림자를 즐겼다. 때로 닻을 풀어 떠가는 대로 맡겨두고, 낚싯대를 던져도 미끼를 물었는지 보는 것도 잊었다. 아득하고 멍하니 꿈속에서 얻은 생각으로 흑 시구를 지어 작은 돌에 썼다가 문득 강물에 던져버리기도 하였다. 이자에게 있어 이 배는 벗들과의 교류의 장소이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놀기에 적합한 곳이었던 것이다.

이자는 젊은 시절 문학을 좋아하지 않아 중년까지도 여기에 힘을 쓰지 않다가 늘그막에 비로소 문학에 종사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시에 있어서는 눈은 높고 솜씨는 서툴러서 두어 구절을 읊어 얻어도 뜻에 차지 않는 곳이 있어 노여움이 따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는 거칠고 화창하지 못하여 감히 시 짓는 사람의 문간과 담도 엿보지 못하지만 다만 스스로 즐길 뿐이라고 하였는데, 유독 토계에 살 때 지은 시가 많다.

종일 짙은 안개가 앞 숲 너머에 있어	終朝重霧隔前林
흰 머리 흘날리며 홀로 앉아 시를 읊네.	白髮離披坐獨吟
홀연 두어 자 강물이 불어난 것을 보니	忽見江流肥數尺
비로소 산비가 이곳을 깊게 했음을 알겠네.	始知山雨這邊深

산이 강의 가운데로 휘어진 모습 평소의 기대에 맞아	山曲江心愜素期
나귀를 타거나 배에 올라 그윽하고 기이한 풍광을 감상하네.	騎驢乘艇賞幽奇
깊은 밤 말을 잊은 채 돌에 앉아 있으려니	夜深坐石忘言處
불을 든 초라한 종아이가 돌아가는 것이 더딤을 알리네.	持火殘僮強報遲

첫 번째 시는 <비 온 뒤에(雨後)>이다. 비 온 뒤 물이 불어나 한층 깊어진 강물의 모습과 함께 짙은 안개에 묻힌 앞 숲을 바라보며 홀로 시를 읊는 시인의 모습을 그렸다. 두 번째 시는 <강가 모래밭(江洲)>이다. 산이 강의 가운데로 휘어진 토계의 모습이 평소의 기대에 맞아 나귀를 타거나 배에 올라 그 그윽하고 기이한 풍광을 즐겨 감상하는 시인의 모습을 담았다. 집에 돌아갈 생각도 잊은 채 밤이 깊도록 강가의 돌에 앉아 조용히 달을 낚는다. 그때 그 고요를 깨고 들려오는 한 마디, 귀가가 늦는 주인이 걱정되어 불을 밝혀들고 찾아 온 종아이의 모습이 새삼 정겹다.

계탄서원에서 팔봉서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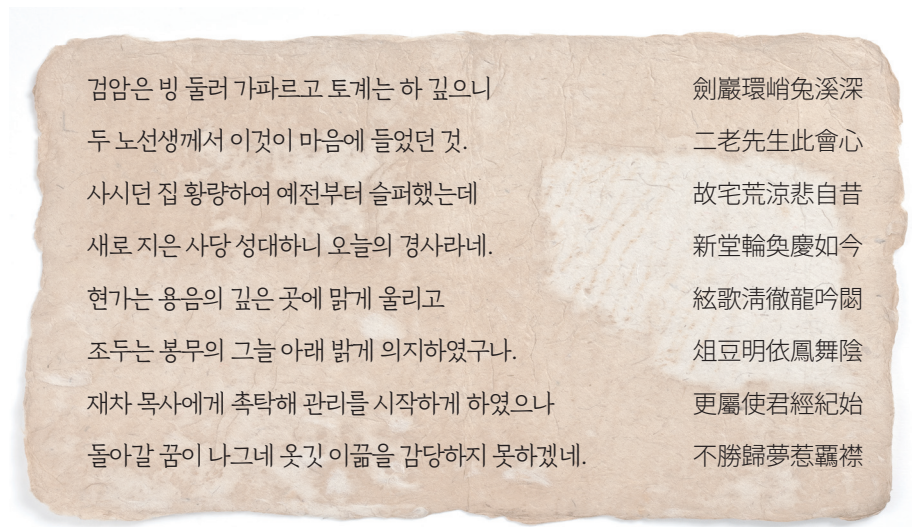
이자는 1533년 12월 몽암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1548년 이연경도 세상을 떠났다. 일찍이 계옹과 탄수로 서로를 부르며 사립문에 달빛 비치고 창문에 바람 불 때마다 한가하게 앉아 이야기 나누고, 서책을 깊이 음미하고 고금의 일을 고증하면서 장차 늙음이 이르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했던 두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토계에서 볼 수 없었다.

이에 1582년 당시 충청도관찰사 김우굉(金宇宏, 1524~1590)이 자취가 사라지는 것을 탄식하여 충주목사 이선(李選)과 상의한 끝에, 고을의 선비 여러 명을 선발하여 몽암유지(夢庵遺趾) 북쪽에 서원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이어 1583년 후임인 유한충(劉漢忠)과 오운(吳灑)이 완성하여 이자와 이연경을 배향하였다. 현재 칼바위(劍巖) 건너편, 충주 대소원면 문주리 팔봉마을에 있는 팔봉서원(八峯書院)이 그것이다.



▲ 팔봉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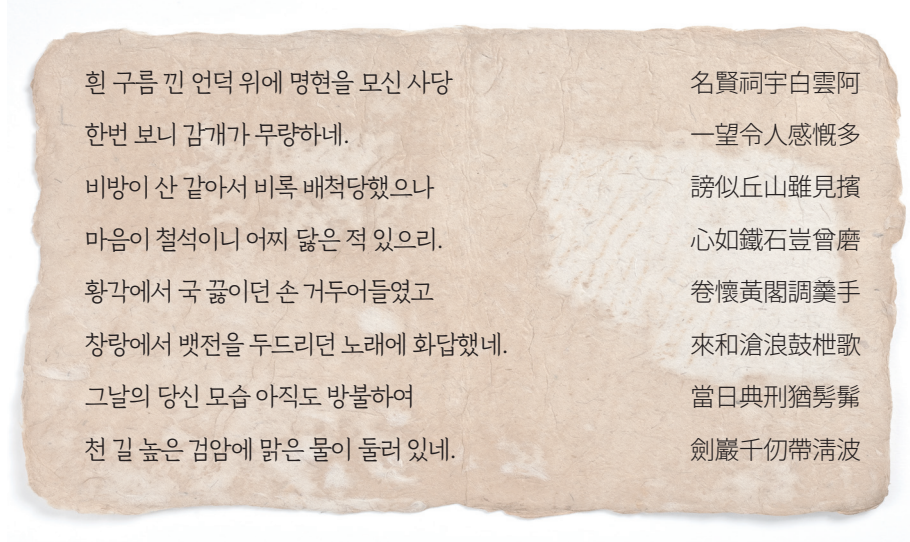
서원 건립 당시에는 편액을 계탄서원(溪灘書院)이라 하였다. ‘계탄(溪灘)’은 이자의 호 계옹(溪翁)의 ‘계(溪)’자에다 이연경의 호 탄수(灘叟)의 ‘탄(灘)’자를 합한 것이다. 이러한 서원의 역사는 1586년(선조 19) 실질적으로 서원의 일을 주관하였던 강복성(康復誠)이 노수신에게 부탁해 받은 <계탄서원기(溪灘書院記)>에 자세히 다. 이후 서원 이름을 ‘계탄’에서 ‘검암(劍巖)’으로 고쳤고, 1612년(광해군 4) 김세필과 노수신을 추향하였다. 그 후 1672년 ‘팔봉(八峯)’으로 사액되었으니 검암(劍巖)과 팔봉(八峯)은 모두 이국 암봉의 뜻을 취한 것이다. 팔봉서원은 1871년(고종 8)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철된 후 1998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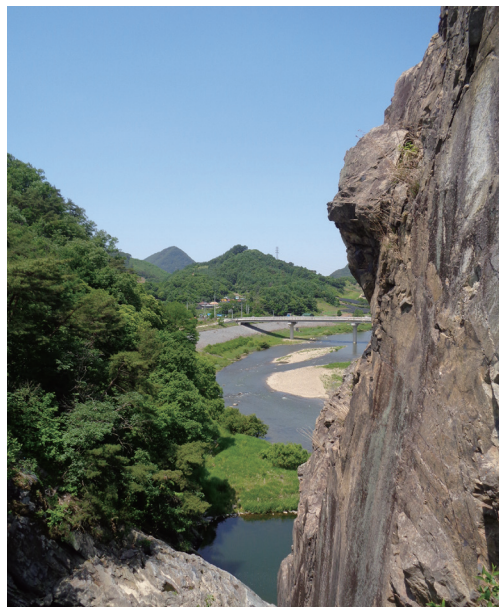
검암은 빙 둘러 가파르고 토계는 하 깊으니	劍巖環峭免溪深
두 노선생께서 이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	二老先生此會心
사시던 집 황량하여 예전부터 슬퍼했는데	故宅荒涼悲自昔
새로 지은 사당 성대하니 오늘의 경사라네.	新堂輪奐慶如今
현가는 용음의 깊은 곳에 맑게 울리고	絃歌清徹龍吟閣
조두는 봉무의 그늘 아래 밝게 의지하였구나.	俎豆明依鳳舞陰
재차 목사에게 촉탁해 관리를 시작하게 하였으나	更屬使君經紀始
돌아갈 꿈이 나그네 옷깃 이꿈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不勝歸夢惹羈襟

1583년 서원을 완공하여 이자와 이연경을 배향한 후 노수신이 지은 것으로 <황경문의 검암시에 차운하다(次黃景文劍巖韻)>이다. 황경문은 지천(芝川) 황정욱(黃廷彧, 1532~1607)으로 노수신이 ‘강관제일(講官第一)’이라 칭찬한 바 있다. 검암시는 황정욱이 충청도관찰사로 있던 1583년 권우(權祐)의 정자를 등람하고 지은 것으로, <검암 권직장의 정자에 지어 보내다(寄題劍巖權直長亭子)>란 제목의 시를 말하는데, 현재 『지천집(芝川集)』에 전한다. 권우의 정자는 초은정(招隱亭)으로 당시 검암의 서편 기슭에 있었다.

노수신은 이연경과 이자가 토계에서 어울릴 때 함께 하기도 했기에 누구보다 두 스승이 이곳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고 가파른 바위 봉우리가 우뚝 솟아 깊은 토계를 빙 두르고 있는 이곳이야말로 이들의 회심의 장소였던 것. 더구나 두 사람은 사후 나란히 이곳 서원에 배향되었으니 살아서나 죽어서나 함께 한다고 하겠다. 용음은 맑은 음성으로 담론하는 소리를 가리킨 것으로, 생전에 이연경과 이자가 서로 담론하던 모습을 상기한 것이고, 봉무는 봉황이 춤추는 듯한 웅장한 산세를 말한 것으로, 여기서는 팔봉서원의 뒷산을 말한다.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이 지은 것으로 <십삼일에 달천을 지나며 검암을 바라보다가 느낌이 있어(十三日, 過獺川望劍巖有感)>이다. 이 시가 「해사록(海槎錄)」에 수록되어 있으니, 김성일이 1590년(선조 23) 3월 5일, 서울을 출발하여 황운길(黃允吉)·허성(許箴)과 함께 일본 사행 길에 13일 달천을 지나며 지은 것이다. ‘황각에서 국 끓이던 손’은 국가의 정사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손을 거두어들었다고 한 것은 이자가 관직에서 물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랑에서 뱃전을 두드리던 노래에 화답했다’는 것은 은거하였다는 말이다. 한편 천 길 검암이 당시 이자의 모습과 방불하다 하였듯, 오늘날 토계를 찾는 사람들도 그 옛날 이자를 대하듯 달천에 우뚝 선 검암을 바라본다.



▲ 검암

안나푸르나의 꿈, 산악인 지현옥

유영선(동양일보 주필)

추모하는 사람들 2023년 4월 20일, 세계적인 여성 산악인 고(故) 지현옥(1959~1999)씨 24주기 추모제가 서원대 내 고인의 흉상 앞에서 열렸다. 충북산악연맹·서원대총동문회·서원대OB산악부가 주최한 이번 추모제에는 김영식 충북산악연맹 회장,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 회장, 김정란 한국여성산악회 회장, 배경미 대한산악연맹 부회장 등 산악인과 서원대 관계자, 총학생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 故 지현옥 산악인 24주기 추모식
(2023년 4월 20일, 충북산악연맹 제공)



▲ 지현옥이 생전에 소속해 있던 백두산악회 회원들의 추모제
(2023년 4월 23일 조령산 지현옥 목비 앞. 사진 백두산악회 제공)

이에 앞서 3월 23일엔 서원대 산악부 후배들이 생전에 지현옥 씨와 등반훈련을 하던 조령산 정상에 올라 추모제를 가졌고, 4월 23일엔 지현옥 씨가 속해 있던 백두산악회 회원들이 조령산 정상에 세워져 있는 지현옥 목비 앞에서 추모제를 지냈다.

지현옥 산악인이 떠난 지 24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4월이면 많은 산악인들이 모여 그를 그리워하며 추모제를 여는 까닭은 무엇인가. 지현옥 그는 누구인가.



▲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 지현옥(1993)

한국 산악 역사 속 충북, 그리고 지현옥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해발 8,848m)를 품고 있는 히말라야는 아시아 대륙의 남쪽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다. 해발 7,200m가 넘는 고봉이 무려 100여 개가 있으며, 8,000m를 넘는 독립 봉우리도 무려 14개나 된다. 이른바 14좌(座, 땅 위에 거대하게 자리 잡았다는 의미), 모두 히말라야 산맥과 카라코람 산맥에 위치한다.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한국 등반 역사를 새로 쓴 사람은 청주연초제조창 소속 고상돈 산악인이다. 1977년 9월 15일, “여기는 정상! 더 오를 곳이 없다!”는 고상돈의 무전통신은 한국 산악계와 국민들을 감격케 했고 한국산악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의 뒤를 이어 수많은 원정대들의 도전과 성공이 잇따랐다. 충북 출신 허영호는 1983년 마나슬루 무산소 단독등정으로 새롭고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수많은 산악인들이 히말라야를 향한 염원을 불태우면서 한국 히말라야 황금기를 이끌어 나갈 때 충북의 여성산악인 지현옥이 등장한다. 산을 오르는 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체력과 기술 등에서 남성보다 열세인 여성이, 그것도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들처럼 해외원정을 통해 고산에 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1988년 지현옥은 조희덕, 김은숙, 이연희, 배경미 등과 한국 매킨리여성원정대를 구성해, 북미 최고봉 매킨리 등정에 성공한다. 이 원정대는 외부의 지원이나 남성들의 도움 없이 여성들만의 힘으로 등정에 성공해 한국 여성등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대한산악연맹이 주관한 여성에베레스트원정대는 한국 최초로 구성된 8,000m 여성원정대로 이름이 높지만, 전국의 여성산악인을 고루 선발하여 훈련함으로써 여성산악인의 저변 확대에도 큰 몫을 했다.

1990년대 여성 히말라야 등반사는 지현옥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1992년 남난희 대장, 지현옥 부대장을 필두로 출발한 여성에베레스트등반대는 로부제(Lobuje 6,119m), 입자체(Imjatse 6,183m)를 무난히 등정한다. 이어 1993년 지현옥을 원정대장으로 도전해 대망의 에베레스트(Everest 8,848m) 등정에 성공한다.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뒤엔 1997년 가셔브롬1봉(Gasherbrum1 8,068m), 1998년 가셔브롬2봉(Gasherbrum II 8,035), 1999년 안나푸르나(Annapurna 8,091m)를 등정하며 한국 여성 최초로 8,000m 봉우리 4개에 오르는 국내 최고의 여성산악인으로 등극했지만, 안나푸르나에서 하산 도중 실종되어 영원히 에베레스트(안나푸르나)의 품안에 잠들었다.

대학산악부... 산에 빠져들다

그동안 남자들의 세계로 여겨졌던 8,000m 이상의 고봉을 4개씩이나 보란 듯이 두 발로 걸어 오르고, 가셔브롬2봉을 단독 무산소로 오름으로써 세계 여성산악인 중 최초 기록을 보유한 지현옥은 삶 전체가 도전과 꿈이 푸른 잎맥처럼 새겨진 삶이었다. 그러나 서원대(당시 청주사범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고 그저 감수성 짙은 말없고 내성적인 미술학도였다.

그는 1959년(주민등록상으로는 1961년 1월 20일) 충남 논산군 연산면에서 칠남매(2남5녀)중 셋째로 태어났다. 농사를 짓는 부모 밑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뒤 대전으로 진출해 자취를 하며 충남여고를 졸업하고, 1979년 서원대(전 청주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 입학한다. 자그마한 체격과 가냘픈 몸매의 수줍은 여학생. 검고 깊은 눈매의 그녀는 사람들 틈에서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산악부가 독특한 서클이라는 고등학교 선배의 말에 이끌려 산악부에 가입하면서부터였다. 산악부가 이름난 산으로 유람 다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막상 겪어 보니 엄격한 규율과 긍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훈련하는 곳이었다. 지현옥은 산악부의 그런 면이 좋았다.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를 수 있는 불타는 투지와 정열로 이끌거리고 있을 대학 1학년 때 나는 산을 만났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던 시기에 만난 산은 나의 머릿속에 팍 들어 차 아무것도 들어올 틈이 없었다.”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 중에서, 교보생명 사보(1991년 1월)-

지현옥은 그렇게 운명처럼 산에 빠져들었다. 모든 일은 산 다음으로 미뤄졌고, 다른 일들이 산에 희생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였다. 대학 신입생이라면 으레 흥미를 갖고 참여할 만한 것들, 이를테면 남학생과의 미팅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아니, 그런 소소한 세상의 재미를 알기 전, 먼저 산과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찍 집을 떠나 자취생활을 해 외로움을 타는 지현옥은 늘 먼 데를 바라보기를 즐겼다. 힘들거나 외로울 때면 산허리에 걸린 구름을 보면서 마음에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산악부 동아리에 가입한 후로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말없이 있다가도 배낭만 메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당당해졌다. 산을 오를 때 느껴지는 숲 냄새는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산에 오르면 형식도 허세도 없는 본래의 자신을 찾은 듯한 안도감... 그녀는 그러한 감정들을 틈틈이 일기로 써내려 갔다.

- 지현옥 등반일기 「안나푸르나의 꿈」 중에서 -



산을 알면서부터 지현옥은 세상의 재미를 버렸다. 대신 자신의 내부에 있는 강인한 욕구에 의해 점점 산으로 깊숙이 빠져들었다. 대학 산악부 선배들을 따라 첫 암벽등반을 하던 날의 설렘과 성취감은 그녀의 인생을 180도 돌려놓았다. 지현옥은 학교를 가는 것이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산악부에 출근하기 위해 가는 것 같았다.

대학 3학년 시절 남자 동기생 두 명이 군입대와 고시공부로 떠나자 지현옥은 자연스럽게 산악부장을 맡게 된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 시절만 하여도 대학산악부는 규율이 엄격하고 선배가 하늘같은 위치에 있었다. 잘못하면 매를 맞는 경우도 많았다. 산악부장으로서 지현옥은 엄격하고 열정적이었다. 때론 융통성이 없을 정도를 요구해서 학생들이 견디지 못하고 산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후배들이 기억하는 지현옥은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 그 자체였다.

결코 산을 떠날 수 없다

1983년 대학을 졸업한 지현옥은 서원대산악부 OB자격으로 하계와 동계훈련에 참가해 후배들을 지도하고 설산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1987년까지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해서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부로부터 용솨음치는 산을 향한 열망 사이에서 힘든 갈등의 시기를 보냈다.

그럴 때 그는 “산이 나의 내부로부터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적었다. 지현옥이 안정된 직장을 나갈 수 없는 것은 산악훈련 때문이었다. 겨우 일자리를 얻었다가도 장기등반 계획이 잡히면 미련없이 사표를 던지고 훈련에 참가했기 때문에 장기등반 후면 어김없이 실업자가 되었다. 실업자가 되면 그는 하루 종일 방안을 뒹굴면서 말로리, 에드워드 워퍼, 모리스 에르조그, 헤르만 볼, 라인홀트 메스너, 우에무라 나ومی, 하세가와 츠네오 등 세계적인 등산가들의 행적을 찾아보며 그들의 궤적을 따라가고자 꿈을 꾸었다.

고민은 생계가 아니었다. 결론은 언제나 산이었다. 그래서 후배들과 훈련에 매달렸고, 시간이 있는 대로 혼자서 암벽등반을 시도하며 산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갔다.

전투처럼 시작한 해외원정

1988년, 드디어 해외원정의 기회가 찾아왔다. 졸업 후 5년 만의 일이었다. 다섯 명의 여성 클라이머들이 뭉쳐서 해외원정대를 구성한 것이다. 대장은 조희덕이 맡았고, 지현옥과 김은숙, 이연희, 배경미는 대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의 목표는 북미 최고봉인 알래스카산맥의 매킨리산(McKinley 6,194m).

해외등정을 앞두고 이들은 함께 합숙하며 도봉산 선인봉에서 암벽등반 훈련을 한다. 이 훈련을 통해 지현옥은 새로운 자신감을 얻는다. 그러나 매킨리 등정은 녹록지 않았다. 1년 내내 만년설로 뒤덮인 하얀 산은 극도의 인내심과 목숨을 담보로 요구했다. 최초의 해외원정으로 부풀었건만 심한 고소증세에 시달린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현옥은 가장 먼저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훗날 당시의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60kg의 짐을 나르면서 들개처럼 험떡거렸고, 목에서는 피가 넘어왔다. 계속되는 구토는 막창의 그 무엇까지도 끌어올리는 듯 지독하게 이어졌으며, 희박한 공기로 인한 고소증세는 두개골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파고 들었다. 이것이 등반이란 말인가? 이것이 머리를 가진 인간이 할 짓인가? 하는 갈등으로 포기하고 내가 그토록 우습게 여기던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견딜 수 없었지만, 전투처럼 치러진 첫 원정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보란 듯이 승리하였다.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 중에서, 교보생명 사보(1991년 1월)-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 여성들만의 힘으로 성공해 한국 여성등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후 지현옥은 국내에서 주목받는 여성 산악인으로 떠오르게 된다.

매킨리 등정을 성공한 다음해인 1989년 지현옥은 대한산악연맹이 주관한 동계 안나푸르나 원정대에 충북 대표로 선발된다. 이 원정대에서 여성은 정명숙과 지현옥 두 사람이었다. 5월에 선발되어 5개월 동안 훈련받은 뒤 11월 네팔로 날아갔다. 지현옥은 꿈에 그리던 히말라야에 대한 기대로 들뜨고 설렘했지만, 한편으론 ‘충북’과 ‘여성’을 대표한다는 심적 부담감에 시달렸다.

안나푸르나(Annapurna 8,091m)는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원정대는 악천후 속에서 고전하다가 결국 등정을 포기했다. 지현옥은 안나푸르나 등반 실패를 계기로 대규모 원정의 순서와 문제점, 고산의 비정함, 스스로 지켜야 하는 철칙 등을 교훈으로 얻고 돌아왔다.

1990년 지현옥은 세 번째 해외원정길에 오른다. 충북산악연맹이 주관한 칸첸중가원정대에 유일한 여성대원으로 선발된 것이다. 그러나 칸첸중가(Kangchenjunga 8,586m) 역시 도도하고 매정했다. 악천후와 경험부족으로 정상공격조는 몇 번을 시도한 끝에 포기하고 말았고 원정대는 철수했다.



▲ 칸첸중가 베이스캠프에서 캠프1로 오르는 지현옥

안나푸르나와 칸첸중가 등반에서 지현옥은 많은 회의감을 갖게 된다. 원정대 내의 유일한 여성으로 체력 강한 남성대원들에 대해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꼈다. 두 번 모두 혼성 등반대에 참가하다보니 언제나 정상공격조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지현옥은 체력이 비슷한 여성들로 구성된 원정대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나는 외롭다. 주위에 온통 남성뿐이고 나 홀로 여자의 몸으로 남성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다. 나는 남성들보다 월등하고 싶다. 등반에 있어서나 등반 외적인 것에 있어서나, 이런 나를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현옥의 등반일기 「안나푸르나의 꿈」, 133쪽. 1990년 10월 22일 칸첸중가캠프에서-

칸첸중가에서 실패한 지현옥은 몸을 추스릴 틈도 없이 이듬해인 1991년 서원대학교 산악부 후배들을 이끌고 원정대장으로 중국 곤륜산맥의 무즈타그아타(7,546m)로 떠난다.

고도 7,200미터에서 비박, 아무런 준비 없이 산에서 잠을 자야 할 정도로 나쁜 상황에서 후배 하나는 실명했고 지현옥은 신경마비에 동상까지 걸렸다.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끝내 지현옥은 후배 대원 한 명과 정상에 등정하는 쾌거를 이뤘다. 네 번의 해외원정 중 두 번의 성공이었다.

프로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지현옥은 또 다른 외로움을 느낀다.

한국여성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

무즈타그아타 등정에 성공하면서 지현옥은 고산 등반가로서의 자질과 대장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그녀의 생애에서 매우 귀중한 기회를 맞이한다. 1992년 2월 대한산악연맹 여성 에베레스트원정대에서 지현옥은 대장을 맡게 된다. 35세의 지현옥은 13명의 대원을 이끌고 산을 올라 마침내 5월 10일 오전10시45분(한국시간 오후 2시)에 최오순, 김순주와 함께 한국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의 정상을 밟는 쾌거를 이룩한다. 이들의 성공은 세계에서 3번째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여성이라는 기록으로 남았다.



▲ 1993년 에베레스트 원정대



▲ 1993년 5월10일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지현옥(왼쪽), 김순주, 세르파

그러나 지현옥은 한국 여성 최초로 대망의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다는 화려한 영광 뒤로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황금 같은 젊은 시절을 산에서 보내고 꿈에도 그리던 에베레스트를 등정했건만, 이러한 영광은 그녀에게 한 순간의 꿈처럼 다가왔다가 사라진 것이다. 자부심을 안고 귀국한 지현옥 앞에 영광과 찬사가 아니라 갖가지 힘담과 시기·질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출발 전부터 세간의 이목을 모았던 원정대였던 데다가, 준비와 등정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갈등, 여성산악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시샘 등이 원정대장인 그녀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나중에 모든 것이 잘못 알려진 것으로 판명됐지만 지현옥에게는 치욕이자 좌절의 시간이었다.

그 일 이후 그는 한동안 산을 향한 꿈을 접었다. 자살까지도 생각했다. 사춘기부터 시작한 부모에 대한 열등감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늘 자신을 왜소하고 외롭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산악인들로부터 받는 질시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행위적이고 도전적이며 진취적인 산에 열중한 것은 어쩌면 밑바탕에 깔린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무렵 그녀의 인간 됨됨이를 보여주는 일화가 전한다. 에베레스트 원정 성공 이후 청주시로부터 산악팀을 결성하자는 제의를 받았는데 당시 충북 산악연맹장이었던 남기창 회장(전 청주대 교수)에게 “제가 시청으로 들어가면 저 때문에 핸드볼부 28명이 모두 실업자가 될 텐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라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자신은 상처 속에 있을지언정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아름다운 배려의 마음이다.

에베레스트의 상처 속에 함몰되어 산행을 멀리하던 지현옥은 1996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백두대간을 종주하며 심신을 단련한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7년 원정대장으로 서원대

산악부 후배들을 이끌고 파키스탄으로 날아가 히말라야의 가셔브롬1봉(Gasherbrum1 8,068m) 등정에 성공하고, 이어 1998년 7월에는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가셔브롬2봉(Gasherbrum II 8,035)을 무산소 단독 등정에 성공하여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 여성 산악인으로 자리매김한다.

단독등반이란 대장과 대원, 행정부터 식량까지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해내야 하는 실로 1인 다역이 요구되는 등반이다. 원정대가 여럿일 때는 동료들이 머물고 있는 베이스캠프가 있지만, 단독 등정은 캠프1에서, 캠프2, 3, 4로 이동할 때마다 혼자서 텐트를 걸어서 옮겨야 한다. 더구나 8,000m가 넘는 고봉을 산소마스크를 쓰지 않고 오르는 것은 웬만한 체력이나 지구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지현옥은 혼자서 그 일을 해냈다. 이 역시 한국 여성 최초의 일이다.

그 기록으로 지현옥은 그해 12월8일 대한산악연맹으로부터 올해의 산악인으로 뽑혀 상을 받았다. 그해는 지현옥이 등산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였다. 지현옥은 100만원 상금을 받으며 소감을 이렇게 적었다.

“알 수 없는 슬픔이 붓물처럼 터져나오름 느낀다. 그리고 무서웠다. 나는 가셔브롬2봉으로 떠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고, 지원도 형편없었다. 등반내내 초조하게 목숨을 구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척이나 외롭고 쓸쓸했다. 그러나 나는 살아서 돌아왔다. 비록 스스로 대만족을 느낄 만큼 대단한 등반을 한 것은 아니지만, 8,035m의 끝에서 보고 내려온 것이다.”

-지현옥의 등반일기 「안나푸르나의 꿈」, 187쪽, 1998년 12월 8일-

안나푸르나에 잠들다

1999년 3월 지현옥은 10년 만에 안나푸르나를 다시 찾는다.

지현옥이 선택한 삶, 20대부터 시작해 2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끈을 놓지 않았던 산.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이것이 머리를 가진 인간이 할 짓인가. 수없이 반문하면서도 지현옥은 ‘나는 모든 것을 갖지 않아도 좋다. 산에만 가게 해 달라.’고 소원했다. 그리고 안나푸르나로 떠났다. 그리고 이 등반에서 그녀는 마지막 정상에 오른 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안나푸르나의 깊고 푸른 산자락에서 사라져 그대로 산이 되어 버렸다. 다시는 그녀의 서글서글한 눈매, 가지런한 미소를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지현옥이 마지막 남긴 안나푸르나 등반 일기를 보면 지현옥은 원정대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낀 듯하다. 등반대보다 보도진이 더 많은 원정대에서 자신은 조연도, 웬지 엑스트라도 아닌 소품 같다는 것.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수록 지현옥은 점점 더 정상 등정에 강한 욕심을 보였다.

운명의 날인 1999년 4월 29일 새벽 3시. 그 날은 비교적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맑은 날씨였다. 한국-스페인 대원들은 3캠프(7500m)를 떠나 정상공격에 돌입했다. 지현옥은 엄홍길 대장과 함께 나섰지만 피곤한 발걸음으로 조금씩 뒤쳐졌고 엄 대장은 앞서서 치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11시46분 스페인의 후아니토 대장 외 2명이 1차 등정에 성공했고 뒤이어 12시36분 엄홍길 대장과 박창수가 2차 등정 성공, 오후 2시 지현옥의 3차 등정 성공으로 이 원정대는 모두 등정에 성공했다.

정상은 경사진 바위에 눈덮인 지대로 오래 머물기가 힘들었다. 이들은 서둘러 하산하기 시작했다. 오후 3시 1차 등정조 3캠프 도착, 4시 2차 등정조 3캠프 도착, 4시20분 다와 세르파 3캠프 도착. 그리고..., 끝이었다. 지현옥과 까뮈 세르파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대원들은 등반루트를 수색하다가 포기하고 눈물을 머금고 하산했다. 고산지대는 어둠이 쉽게 찾아오기 때문에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나이 마흔, 세상의 일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불혹(不惑)이었다.



▲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 세운 지현옥 산악인 동판

**한국 산악역사의
밑거름이 되어**

머릿속에 온통 ‘산’뿐이었고, 산 이외의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지현옥.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생애를 불꽃처럼 살다 간 여성, 그가 ‘무섭게 집중’하며 산에 자신을 쏟아부었던 삶이 밑받침이 되었을까,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4좌 완등자를 배출한 산악선진국이 되었다.

그리고 고인에게 1993년 체육훈장 기린장, 사후인 2000년 체육훈장 백마장이 수여됐고 충북산악연맹과 산악후배들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산악인 양성과 추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추모 목비

▲ 지현옥 흉상

지현옥 약력	
연도	내용
1959	충남 논산에서 2남5녀 중 셋째로 태어남(주민등록상 1961년생)
1979	서원대학교에 입학, 산악부 가입
1983	서원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졸업
1988	한국 여성 최초 매킨리 등정(한국 여성 매킨리 원정대)
1989	안나푸르나 원정(대한산악연맹 원정대) 등정 실패
1990	칸첸중가 원정(충북산악연맹 원정대) 등정 실패
1991	한국 최초 무즈타그아타 등정(서원대학교 등반대장)
1992	로부제, 임자체 등정
1993	한국 여성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대한산악연맹 한국여성에베레스트원정대 등반대장)
1993	에베레스트 등정 공로로 체육훈장 기린장 수상
1997	가셔브롬1봉 등정, 서원대학교 등반대장
1998	여성 최초 가셔브롬2봉 단독 무산소 등정, 올해의 산악인상 수상(대한산악연맹)
1999	안나푸르나 원정, 엄홍길과 함께 스페인 바스크팀에 합류, 등정 후 실종
2000	체육훈장 백마장 수상

- ▶ 세계 여성산악인 중 최초 기록 보유
 - 여성 단독 무산소 8,000m 고산등정(가셔브롬2봉 8,035m)
- ▶ 한국 여성산악인중 히말라야 자이언트봉(8,000m이상의 산) 4좌 등정
 - 완등한 4좌: 에베레스트(8,848m) 안나푸르나(8,091m),
가셔브롬1봉(8,068m), 가셔브롬2봉(8,035m)
- ▶ 한국 산악인중 초등기록 보유
 - 1좌 : 무즈타그아타(7,546m)

17세기 서원현의 어느 노비 사송(詞訟)

조혁연(충북대학교)

청주목이 아닌 서원현 조선시대에는 민사와 형사 재판이 혼재돼 진행됐으나, 그렇다고 구분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민사재판은 주로 말로 한다고 해서 ‘사송’, 형사재판은 형률을 많이 적용한다고 해서 옥송(獄訟)이라 불렀다.

1656년(효종 7) 청주목은 종 억이(億伊)가 주인을 죽인 강상윤리 사건이 일어났다. 청주목은 이 사건으로 10년 동안 서원현으로 강등됐다.

1661년(현종 2) 서원현에서 노비 소유권을 둘러싼 사송이 벌어졌다. 원고는 노(奴) 장철생으로 같은 노인 장복룡을 대송(代訟)했다. 피고는 서원현의 양반 정승철(鄭承哲, 64)이었다. 노비는 성별이 들어간 표현으로 남종은 노(奴), 여종은 비(婢)로 표현했다.

사송의 발단 1619년(광해군 11) 충청도에 대기근이 들어 굶주려 죽은 시체들이 쌓여가는 상황이었다. 당시 충청감사 여우길(呂祐吉)은 ‘도내에 기황(飢荒)이 들어 봄이 되자 더욱 절박하여 백성들 가운데 굶주려 죽은 자들이 날마다 쌓이고 있습니다. 수령을 교체하는 것에 있어서도 폐단이 적지 않으니 봄과 여름 전에 임기가 차 체직시켜야 할 자들도 모두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유임시키기 바랍니다.’(『광해군일기』 12년 2월 1일)라는 장계를 올릴 정도였다.

김윤보(1865~1938)의 <형정도첩>(20세기초) 중 원고와 피고가 소장 제출하는 모습.

소송의 배경은 대기근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근이 심하던 1620년 2, 3월께 괴산현에 사는 노 장복룡은 아침에 일어나 대문을 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누군가가 그의 집 대문 앞에 2~3세 가량의 여아(女兒)를 놓고 갔다. 노 복룡은 그 여아를 거두어 ‘논월(論月)이라고 이름짓고 이듬해 그 여아를 정식 입안하고 괴산 관아에서 증명서[입안]를 발급받았다.

10년이 지난 1631년 서원현에 사는 양반 정승철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논월은 본래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비 설매(雪梅)”라고 주장했다. 당시는 그 정도에서 그쳤다. 다시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1659년 서울에 사는 경승철, 승달 형제가 괴산에 내려온 것을 계기로 괴산 관아는 논월을 붙잡아가 심문했고, 그녀는 자신이 도망 노비임을 인정했다.

정승철은 이를 계기로 논월의 자식 1명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소 1마리 등을 강제로 빼앗았다. 그러나 노 장복룡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같은 노 신분인 노철생을 사송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복룡은 임진왜란 당시 충청도관찰사를 지냈던 유근(柳根, 1549~1627) 가문의 노비였다. 그는 노주가의 체면 등을 고려해 자신이 직접 소송인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정황상 친척으로 추정되는 철생을 대송인으로 내세웠다.

본래 이 소송은 원고 장복룡이 소장을 충청도관찰사 앞으로 접수했다. 그러자 당시 충청도관찰사는 소장을 괴산현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실제 송정[재판정]은 척(隻)이 살고 있는 서원현에서 꾸러졌다. 조선시대에는 피고는 척, 원고는 지금과 같은 원고라고 불렀다. 피고와 원고를 동시에 부를 때는 ‘원척’이라고 했다. ‘척지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유래했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정황상 당시 충청도관찰사가 괴산현감과 피고가 유착돼 있음을 감지했고, 따라서 송정을 괴산현이 아닌 서원현에 차린 것으로 사려 된다.



▲ 김윤보(1865~1938)의 <형정도첩>(20세기초) 중 원고와 피고가 소장 제출하는 모습.

사송의 전개와 결승

1661년 1월 서원현에서 원고 노 철생과 척 정승철에 대한 고음(拷音) 절차가 있으면서 시송(始訟)됐다. ‘고음’은 순우리말 ‘다짐’을 이두어로 표현한 것으로, 관에 대하여 재판 결과에 승복을 다짐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해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서원현 송정에서 원척을 상대로 3차례의 초사(招辭)가 이뤄졌다. 초사는 송관[재판관]의 신문에 따라 죄인이 진술을 하는 절차로, 원고 복룡은 전술한 바를 말했다.

척 정승철은 거의 상반된 진술을 했다. 그는 “논월의 본래 이름은 설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도망비인 귀인개(貴仁介)가 5살 짜리 소생 설매를 괴산현내 관비 논개(論介)에게 맡겼고, 그 사실을 그후 알게 돼 1623년 추심을 시도하였으나 논개의 간청으로 미뤄오다가 1659년에야 추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귀인개가 도망한 이후부터 소재처를 파악하고 추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원고 복룡은 사송 과정에서 척측의 추심 부분에 청탁과 거래 의혹이 있음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복룡은 “서울에 사는 양반 경씨가 친분을 이용하여 괴산 군수에게 청탁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울에 가서 경생원에게 확인한 결과 ‘소송에서 승소하면 노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정승철을 위해 청탁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송관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가고(可考) 문기를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가고문기’는 참고할만한 문서라는 뜻이다.

송관은 그 과정에서 피고측에서 제출한 비 논월 봉초기(捧招記), 1615년 화회문기, 1659년 화회문기 1장에 대해 그 증거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비 논월 봉초기는 겁박에 의한 결과로 인정하고 그 증거력을 불인정했다. 그해 2월 송관은 ‘당초 원육인(當初 願育人), 즉 대문 앞의 유기아를 처음 입양한 복룡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종 결승 이후 노비에 대한 조선의 법칙은 종모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다. 그것은 “암송아지를 낳았을 경우 그 소유주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과 같은 경우로, 인간도 어미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양반 등 조선의 지배층은 시간이 흐를수록 ‘일천즉천’(一賤則賤)이라는 교묘한 논리를 발굴, 이를 『경국대전』 명문으로 관철했다. 이때부터 조선시대 노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삼국시대 노비 비율을 알 수 있는 사료로는 우리고장 청주지역 4개 촌락을 대상으로 작성된 ‘신라장적’이 있다. 이 사료를 보면 청주지역 4개 촌락의 총인구수는 442명으로, 그중 노비는 19명이었다. 대략 6% 정도로 그리 많지 않았다.

임진왜란 이후 지방은 전체 인구의 40~50%, 한양은 70%까지 노비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노비인구 비율이 한양에 특히 높았던 것은 사대문 안의 사대부들이 전국적으로 수백명의 노비를 많이 보유했기 때문이었다.



▲ 『속대전』(1746) 표지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통일신라시대 6%가 조선후기 인구 절반 가량이 노비화된 것이다. 영조는 재위 22년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개정된 헌법인 『속대전』(1746)에 일천즉천을 없애는 조항을 신설, 노비인구 증가를 강력히 억제했다.

『속대전』이 복룡의 승소 판결에 또 하나의 신분적인 변화를 안겨주었다. 『속대전』은 “노비 유기아의 소유주가 불분명할 경우 종량을 허락한다”라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 규정에 따라 비논월의 소생들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됐다. 1백20년 전인 1620년 노 장복룡의 대문 앞에 버려진 여아도 부모를 알지 못하는 아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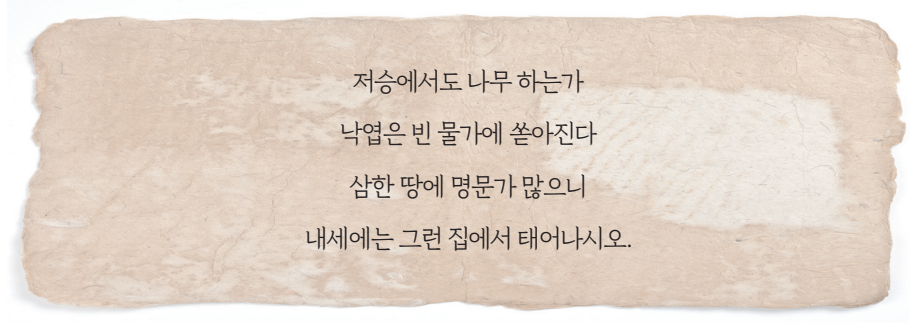
노비는 경제재 조선시대 지배층은 노비를 인간이 아닌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한 경제재로 생각했다. 때문에 부르는 호칭도 1명(名), 2명이 아닌 1구(口), 2구 식으로 표현했다. ‘서원현 논월’의 사송도 노비를 인간이 아닌 재산으로 인식, 편취(騙取)하려 한 것에서 비롯됐다.

조선 지배층은 그런 노비에게 노동 강요, 성적 폭력, 사적 체벌을 가하는 등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 매우 드물지만 노비를 인격적으로 대한 양반도 있었다.

조선 정조대에 경기도 양평에 정초부(鄭樵夫 1714~1789라는 나뭇꾼 시인이 살았다. 경기도 양평에서 한양 동대문까지 지게에 나뭇짐을 지고 가며 이런 시를 지었다.

시인의 남은 생애는, 늙은 나무꾼신세
지게 위에 쏟아지는 가을빛, 쓸쓸하여라
동풍이 한양 큰길로, 이 몸을 떠다밀어
새벽녘에 걸어가네, 동대문 제이교를

그가 죽자 정초부의 노주(奴主)이자 글동무였던 여춘영(呂春永, 1734-1812)은 그를 묻고 돌아오면서 이를 시를 지었다.



여춘영과 정초부는 신분을 초월해 우정을 맺었다. 서원현 논월의 사송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조선시대 비밀비재하게 일어났던 노비송(奴婢訟)의 하나였다. 특히 논월과 같은 유기아 입양은 홍수, 대기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 사정이 악화됐을 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참고문헌 「1661년 서원현 결입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경국대전」

『광해군일기』

「속대전」

김경숙, 2020, 「16, 7세기 유기아 수양법과 민간의 전용」, 『고문서연구』 57.

변주승, 1998, 「조선후기 유기아·행걸아 대책과 그 효과」, 『한국사학보』 3·4.

조규휴, 1998, 「16세기 진제정책의 변화」, 『한성사학』 10.

김주경, 변월룡을 보다

(지난호에서 계속)

김기현(미술칼럼니스트)

해방공간의 혼란과 예술가들의 월북

김주경은 이듬해 김복진을 가슴에 안고 북으로 갔다. 이듬해는 1947년 가을로 해방 이후 좌우익의 갈등이 시작되자 남쪽의 미술가들이 북으로 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조선미술의 현실을 걱정하며 함께 토론하던 김복진이 유명을 달리한 지 한참이 지나서이다. 1947년 초 조선미술가협회가 정치적 중립을 표명했지만 파행이 계속되어 좌익 화가들이 탈퇴하며 분열한다. 김주경은 오지호, 이인성, 박영선 등과 조선미술가협회를 탈퇴하고 조선미술가동맹을 새로 결성한다. 이 시기는 김주경에게 화가로서 큰 혼돈의 시기로 보인다. 당시 조직 활동가였던 김주경은 인상주의 화풍에 주관적인 색채가 가미된 야수주의 양식의 그림을 그렸다. 일종의 밝은 색채로 야외의 신선한 광선이 가득한 풍경 화가였다.



▲ 김주경 생가터,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246 일원. 서너 채 있던 집은 다 없어지고 농지와 공터만 남아 있다.

인상주의와 야수풍의 화가이며 시대에 맞지 않는 서양 추종의 화가라는 항간의 비난과 비평에 맞서 김주경은 그림과 의식의 다름을 주장해 왔다. 그는 진천군 문백면 빈농 출신으로 그림을 어렵게 공부했다. 당시의 환경에서 그림공부를 위한 일본 유학은 절실한 선택이었다. 동경미술대학 시절 도안을 전공하지만 그는 그림을 어떠한 목적으로 그려야 하는지 알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김주경은 교육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1928년 귀국 후 경성여자미술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1929~1931)로 지냈다. 이후 송도(개성)의 송도고보 교사로 1935년 초까지 근무하다가 오지호에게 물려주게 된다. 모교인 경성제일고보와 경기중학 교사로 해방 전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향후 북에서의 교육활동에 중요한 경험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가 아닌 화가로 남한사회의 미술 환경에서 김주경은 더 이상의 미래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해방공간의 어수선한 미술환경에서 비평이 아닌 비난이 그를 괴롭혔을 것이다. 이념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완전 월북이 아닌 경험을 위한 월북일 수도 있다. 어떠한 이유든 당시의 남과 북은 화가들에게 선택을 해야 할 대상이었고 북쪽은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다. 북한은 미술 변혁의 시대를 요구받자 남한의 화가들과 조각가들을 초청하기에 이른다. 김주경, 그가 북으로 간 것은 다른 여러 중견 미술가들의 월북의 이유와 다르지 않다. 김주경이 가장 먼저 월북을 하였고, 이쾌대, 김용준, 길진섭, 정종여, 리석호, 배운성 등의 화가 40여 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거의 모두가 일본에서 공부한 작가들로 북한이 사회주의의 현대 미술로 변화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1946년 해방 후 미군정이 한국사회 문화를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유수의 작가들이 북으로 간 이유를 조금이나마 유추해볼 수 있다. 송건호¹⁾와 강만길²⁾은 한국사회의 좌파 내지는 중도세력이 우세했을 것이라고 당시의 환경을 이야기하였다. 결국 미군이 아니었으면 한국은 공산화하였을 것이라는 결론인데, 이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이기도 했다. 한국의 근대는 패권 국가들의 향방에 의한 결정으로 스스로 방향을 짓지 못하던 시기이다. 송건호는 진보적 해석으로 당시 우파는 해방을 맞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심의 성격이 좌파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강만길은 해방 이후 한국사를 분단의 시대로 이야기 한다. 그는 분단 극복이 우리의 과제라 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군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두고 있다. 분단된 해방공간에서 좌익과 우익의 합작으로 사회주의 지향이 70%로 높게 나타났다. 자본주의 지향이 17% 정도이고 공산주의 지향세력은 13%로 나타난 것을 본다면 당시 국민의 시대 정서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로 편향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민심은 결국 현실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보다는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했다. 해방공간에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버리고 남하한 사람들은 약 150만여 명, 북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불과 13만여 명이라는 기록은 민심이 당시의 현실임을 잘 나타내 주는 대목이다.

체제 유지 도구로써 북한 미술

동시대 북쪽의 정서로 미술을 보면, 남의 화가들이 북으로 간 이유가 미군정의 조사가 주는 신뢰보다 높아 보인다. 지금의 러시아, 즉 분리 독립 전 소련과 중국은 미술을 통치의 주된 도구로 사용했다. 두 공산주의 국가가 시도한 체제유지 도구로써 미술은 북한에 큰 영향을 끼친다. 북쪽에서는 이미 해방 직후부터 지도자의 모습을 그림과 조각으로 제작하였다. 평양 출신으로 동경미술학교에서 유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온 정관철³⁾은 교편을 잡으면서 1945년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 김일성의 초상화를 그렸다. 이는 하나의 체제를 위한 최초의 지도자 초상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유사한 시기, 김일성의 초상화는 그 수를 기록하기 어려운 정도로 그려졌다. 김주경이 북으로 향했던 1947년 이전부터 이후 까지 북에서는 수만 여점의 초상과 기록화가 그려졌다는 기록이 있다.⁴⁾ 국가적 신념과 지도자의 우상화, 그리고 정제된 질서 안에서 정책적으로 미술가를 대대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그에 준하는 제작비는 화가들에게 보상이 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소문은 남으로 내려왔다.

1) 1927년 9월 27일 충청북도 옥천 출생. 언론인, 민주화운동가, 역사학자. 1979년 한국현대사론 발간. 1984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결성.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신군부 고문 후유증으로 2001년 12월 21일 타계

2) 1933년 경남 마산 생. 역사학자.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한국민족운동사론 등 출간

3) 1916년 평양 출생. 1937년 동경미술학교 입학. 매혈로 학비조달 1942년 졸업. 선전에 3번 입선. 조선미술가 동맹위원장. 북한 사회주의 미술 주도.

4) 조선역대미술가편람

김주경은 남으로 내려오지 못했다. 해방공간에서 북한은 체제를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혁명적으로 수행했다. 앞서 이야기한 초상화는 물론 북한은 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기를 만드는 일에 김주경이 있었다. 단지 도안(디자인)의 전공자라서가 아니라 사상의 깊이가 김주경에게 드러나 보인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아무튼 김주경은 북한의 인민기를 디자인하고 평양미술전문학교의 초대 학장으로 취임한다. 함께 월북한 조규봉⁵⁾과 김정수⁶⁾도 모란봉 해방탑 건립과 관련해 북쪽의 초청을 받고 올라가 돌아오지 않았다.

김주경이나 다른 작가들이 북에 남게 된 것은 어쩌면 남쪽의 혼란한 미술 환경에 실망을 하고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에 심취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주경이 북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현재 남아 있는 정보는 미미하다. 결국 사회 현상으로 보아 몇몇 활동을 유추할 수밖에 없고, 그가 북에서의 활동한 흔적들과 그와 함께 일을 했던 작가들의 활동 기록으로 조금이나마 조각을 맞춰볼 수 있다. 남한사회의 인상주의 유파 화가로 자리를 하던 실력과 예술가에서 북에서의 창작은 거대한 변화의 모색이자 모험이었을 것이다. 남에서의 화가 김주경이 아닌, 북에서의 김주경의 화풍을 ‘조선역대미술가편람’에서 다음과 같이 품평하였다.

그는 새로운 현실이 요구하는 적극적인 주제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사실주의적 형상 방법,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맞는 인민적인 미술형식에 기초한 건전한 유희창작의 길을 걷게 되었다.⁷⁾

북쪽에서의 김주경의 작품 경향은 위 몇 줄로 분명해진다. 주경은 창작과 교육활동에 전념한다. 이 시기는 중국의 신중국 성립(1949)과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1948) 시기로 두 나라의 사회주의 미술은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다. 김주경은 북한 미술을 소련 모델을 따라 제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⁸⁾ 하지만 북한에서 김주경이 어떻게 창작 활동을 했는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해금 시기에 월북 작가의 많은 작품들이 남한에 소개되었지만 김주경의 그림은 없었다. 김주경에 관해서는 1947년 월북과 동시 제작된 북한식 제도미술에서 상을 받거나 선전과 선동의 목적으로 그려진 작업들이 있다는 정도의 정보만 있을 뿐이다.⁹⁾

해방 후 남과 북, 양쪽의 체제가 문화예술과 이를 통한 체제를 재형성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차이는 분명해 보인다. 정부 수립 전 남한 미술계는 단체 결성의 시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치열함이 보인다. 미술가 동맹과 미술가 협회의 대립은 이념의 미술계 대립의 양상을 보이기까지 했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은 혼돈의 미술계 3년을 정리하듯 협회의 성격으로 굳어지게 된다. 반면 북한 미술의 형성기가 월북 미술인들에 의해서 식민기간의 버려진 전통문화를

5) 인천 출생. 1941년 일본 동경미술학교 조각과를 졸업. 1944년까지 조선미술전람회 인물상 소조작품이 입선과 특선을 하면서 조각계에 진출. 광복 직후에는 서울에서 김경승·윤효중 등과 조선조각가협회 조직에 동참. 1946년 조선조형예술동맹 간부로 가담하다가 월북. 그 뒤로 북한에서는 김일성 동상제작, 정치적 주제작품 및 조각가 활동

6) 서울 출생. 광복 전 동경의 일본미술학교 조각과에 유학. 조선미술전람회에 조군의 목, 물 길는 아가씨 입선. 조각계에 진출 1946년 3월 광복 후 조선조각가협회 참여. 광복 직후 서울에서 조선프롤레타리아미술동맹과 조선조형예술동맹의 간부로 활동. 1947년에 월북.

7) 조선역대미술가편람

8) 조민주, 「21세기 중국에서 바라본 북한미술 -북한미술의 전시 및 유통의 확대와 새로운 사회주의 미술 취향의 형성-」,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3쪽.

9) 김민수, 「창작과 표현으로 본 북한 선전화」, 아시아리뷰 제11권 제1호, 2021, 150쪽.

재조명하는 일에 큰 힘이 되었다. 조선의 예술 가치를 일본 식민사관을 버리고 철저하게 단련된 민족적 사관으로 변화를 하는 데 큰 역할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택한 미술이 소련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었다. 한국전쟁 중에도 북한은 소련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소련은 북한에 화가를 지원하는 등 활발히 교류했다.

**김주경,
변월룡을 만나다**



▲ 변월룡



▲ 휴전 직후 평양미술대학 교수진

김주경이 평양미술전문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창작과 교육 활동을 하던 시기에 소련의 문화성에서 변월룡¹⁰⁾을 북한으로 파견하였다. 김주경이 변월룡을 만난 것은 분단의 시대 평양에서 북한 미술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구소련의 계획 과정에서의 우연이라고 할 수 있다. 변월룡은 나이로 보아 김주경보다 15년 아래이다. 그는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명문 레핀미술대학의 교수가 된다. 러시아 과학적 아카데미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화가로 선전화를 많이 제작한 성공한 고려인이다. 그는 1953년 평양 파견 후 북의 화가들과 남한에서 북으로 월북한 화가들을 지도하게 된다. 이때 김주경도 지도의 대상이 되었고 교장이던 주경의 평양미술전문학교를 변월룡은 평양미술학교(현 평양미술대학)로 개명하고 승격을 하기에 이른다. 초상화에 뛰어난 변월룡은 무용가 최승희를 그린 것으로 평양에서의 명성이 자자해진다. 단지 초상화의 능력으로만 유명세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그가 그린 그림들 자체가 인물의 내면적 리얼리티를 깊이 있게 포착해 내고 있는 명작이자 우리시대 변혁의 역사 기록으로 보는 것이 옳다. 전쟁 중 북한의 포로가 미군이 제공한 군복을 벗어 던지고 속옷차림으로 트럭에 오르는 판문점에서의 북한포로 송환 작품을 보면 화가는 무엇을 그려야 하는가를 잘 나타내 준 명작이다. 이 그림은 현장에서의 상황을 그린 기록화를 넘어 증인으로서의 예술가 해야 할 역할을 잘 나타내준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10) 1916년 러시아 연해주 출생. 고려인 화가. 1951년 레핀미술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 동 대학의 교수를 역임. 1953년 북한으로 파견 북한 체류 중 평양미술대학 설립.



▲ 변일룡, 최승희 초상



▲ 변일룡, 판문점에서의 북한 포로 송환



▲ 변월룡, 6.25 전쟁의 비극(종이에 연필)



▲ 변월룡, 분노하는 인민(종이에 연필)

변월룡은 평양에서 1년 3개월여의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 미술을 북한의 미술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도하였다. 이는 평양미술대학의 지위까지 바뀌게 되는 현실적 상황으로 북에서의 김주경에게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계기이다. 변월룡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획보다 빨리 소련으로 가게 된다. 월북 전 인상주의 대표화가로 오지호와 활동을 했던 주경은 북에서 자신만의 리얼리즘 화가로 변신을 하게 된다.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사회주의 리얼리즘 형상 방법으로 민족의 감성과 정서를 일치시킨 화풍의 화가가 된 것이다.

김주경이 남에서 그린 「부녀 야유도」와 북에서의 작품인 「공사판 풍경」은 그를 시사하는 두 개의 이념이 보이는 그림들로 보인다. 안양에서의 ‘밤 줍기 대회’를 그린 것이 「부녀야유도」이다. 인상주의풍 화가인 김주경에게는 주제와 조형성이 잘 드러나 있다는 평이다. 1936년에 그려진 작품이니 오지호와 남한사회에서 미술가 조직 활동을 하던 시기이다. 1958년 평양미술대학교 학장직을 그만둔 이듬해 1959년의 그림인 「공사판 풍경」은 김주경의 사회주의 미학의 작품이라 평가 할 수 있다. 노동자, 농민으로 대두되는 민족주의 건설의 주역들이 북한의 미술에서 주된 소재이자 북의 제도의 미술이 된 것은 소련 사회주의 미술의 수용이 큰 요인이다.

오늘, 김주경을 생각하다

남한 사회와 북한의 미술사는 분단 이후 그 갈래는 더욱 심화 되고 있다. 하지만 남이든 북이든 제도권이 존재를 하면서 체제유지나, 순수한 미술의 영역을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감대를 갖는다. 월북 작가들의 해금이후 미술계는 변모를 하였다. 단절의 시간만큼 해석에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북한의 그림이 남한의 민족주의 민중미술과 평가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두어야 한다. 북한의 미술을 북의 문화예술 장르로 창조적 미술로 수용해야 한다. 남북의 갈래가 아닌 미술을 보려는 우리의 자세가 남한의 제도 미술도 재평가 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김주경의 연구는 우리지역 화가 손순옥의 논문에서 다루어졌다. 대학원 학위의 논문이 김주경을 연구하는 데 기초를 두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청주 시립미술관에서의 아카이브 전시에 출품된 김주경의 작품과 국립현대 미술관 청주의 전시에 소개된 김주경의 작품이 지역사회 김주경을 생각하게 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제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아카이브를 위해서도 충북 진천 문백 출신의 화가 김주경이 우리나라 변혁기의 뛰어난 화가로 활동한 부분은 재해석하고, 연구되고 작품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다.



▲ 김주경. 부녀야유도. 1936. 캔버스에 유채. 116×51cm



▲ 김주경. 공사판 풍경. 1959. 캔버스에 유채. 135×98cm

2023년 봄 어느 날 진천 문백면 문백면사무소가 있는 옥성리 가는 길은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다. 2011년 새로 지은 면사무소는 최신 재질의 건축물로 다소 기하학 형태를 지니고 있다. 김주경의 가족사를 알기 위해 정확한 주소지를 요청한 민원인에게 건물의 외형과 날씨만큼 공무원의 태도는 냉랭하기만 했다. 이해는 되었지만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 달 후 몇 가지 자료로 문백면 사양리를 찾았다. 봄꽃들이 막 필 무렵이었다. 누군가가 그랬다. 역사의 기록은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작업이라는 점, 그랬다. 나에게 김주경을 찾는 일이 기초인식의 바탕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동네를 뒤지며 인식하게 되었다. 사양리에 김주경은 없었다. 이미 이 동네도 외지인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가족을 알 만한 분들은 작고한 상태였다. 시간과 공간 개념의 정의로 보아도 시간의 사이는 너무 컸다. 사이는 본질적 공간이라 했지만 시간을 간과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결국 문학과 건축에서의 정의를 가져와야 했는데 그것이 크로노토프였다.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이 괴리될 수 없는 복합체라고 한다. 시간과 공간에서 역사의 인식은 견문 기록과 기행에서 특징을 보인다고 했다. 견문 기록이 갖는 시공간은 단순 행위가 아닌 말을 함으로서 시작되는 시공간이다. 발화라고 한다. 대화의 시공간이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내는 배경이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에서의 김주경의 미술 행보를 산재해있는 자료를 결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그의 자취기록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비록 팩션이기는 해도 필요성을 갖는다. 남쪽에서의 창작 공간과 북에서의 사회주의 미술건설이 그에게는 책무였다. 정제되지 않은 북한의 미술을 구조론에 의해 구체화 될 때 주경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는 해방공간에서 북한의 미술을 견문한 연구자가 있을 것으로 본다. 사실을 단순히 정리하는 것에서 상상력으로 기록자의 모험도 아카이브에 절대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김주경의 연구가 단순한 기행, 탐험 등으로 불린다 해도, 화가의 기록은 문학처럼 작품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크로노토프적 김주경의 재현이라 했다. 분명히 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결국 시공간에 대한 의미 해석이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해도 인물의 존재로 해석하여, 탄생의 지금 사양리와 창작의 서울 거기는 남한 사회의 시공간이다. 연구자의 대상인 어느 화가가 해방공간에서 남북의 이념 때문에 제한된다면 한반도의 한 화가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향후 누군가가 할 일이겠지만 필자인 나는 아직도 사양리¹¹⁾와 평산리, 장월리에 있다.

11)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김주경의 고향 마을. 문상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진천읍에서 가깝다. 평산리와 장월리가 접해 있다.

2023년 “충북학 제25집” 원고모집



충북학연구소에서는 매년 '충북학'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발간 『충북학』 제25집의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해석과 재조명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원고를 투고해 주시면 편집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예정입니다.

모집정보

모집분야 | 충북관련연구논문 및 비논문원고 모집

모집대상

연구자, 대학원생, 대학생, 일반인

분야	분량
연구논문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연구논단(논문과 저널의 중간수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저널(문화초점, 인물탐구, 자료소개, 서평 등)	

모집일정

원고마감 : 2023년 10월 30일
 게재심사 : 2023년 11월 15일
 결과통보 : 2023년 11월 16일
 발간시기 : 2023년 12월

제출방법

이메일접수
 cbc9236@cri.re.kr
 문의 | 043) 220-1161~2

- * 자세한 사항은 충북학연구소로 문의 하십시오.
- *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The Chungbuk Studies Institute

충북의 정체성 구현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합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전화 043.220.1161~2

홈페이지 <http://csi.cri.re.kr>